

“무대 위에서 배우의 삶 마감하는 게 꿈이죠”

60년 연기 인생 걸어온 배우 김성녀

7년간 국립 창작단 예술감독 퇴임하고 배우로 돌아와
창극·뮤지컬 등 장르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펼쳐 ‘천의 얼굴’
15년째 통런 모노 드라마 ‘벽속의 요정’ 대중속에 각인
요즘 인기 송가인·김준수 등 젊은 세대 제자로 길러
재담·춤·음악 결합인 마당놀이 연극계 새 장르로 정착

‘천(千)의 얼굴’로 불리는 배우 김성녀(69). 다섯 살 때부터 국극 스타인 어머니의 아역(兒役)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해 현재까지 연극과 마당극, 창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 왔다. 연기와 노래, 춤 삼위 일체를 갖추고 무대에서 종합무진 활동을 펼쳐온 그에 대해 김성녀 문화평론가는 “김성녀는 배우의 원형이자 전형이며 이상형이다”라고 극찬한다. 그는 지난 3월, 7년간의 국립 창작단 예술감독 직을 퇴임하고 ‘배우 김성녀’로 돌아왔다. 최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소극장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 예술인생에 대해 들었다.

1900년대 초에 한국 고유 소리인 판소리에서 파생된 음악극이다. 그는 창작단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고여 있는 물’같은 창극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4가지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우선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을 해의 유명 연출가들에게 연출을 의뢰해 새롭게 재해석하도록 했다. 그리스 비극 등 서양고전을 국내외 연출가들에게 맡겨 우리 정서와 감각에 맞는 창극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한 창극의 전통을 변주하고, 동 시대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마당놀이 ‘심청전’ 길놀이(1988년).

이처럼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창극의 파격적 시도는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언론매체는 창극 ‘미디어’에 대해 ‘오페라와 뮤지컬을 위협하는 창극의 위대한 혁신’이라 평했다.

스릴러 창극과 18금(禁) 창극 등 새롭게 변모한 창극을 보려는 관객들의 매진행렬이 이어졌다. 그때마다 창작단에서는 전통에 따라 봉투에 1000원을 넣은 ‘만원사레(滿員謝禮)’ 봉투를 예술 감독을 비롯한 단원들에게 돌렸다. 관객들은 창극이 ‘김성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얘기했다. “젊은 관객들이 몰렸어요. 오페라와 연



‘천(千)의 얼굴’로 불리는 배우 김성녀.



32개 캐릭터로 변신하는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극, 발레 공연을 즐겨보던 관객들이 찾고, 공연을 여러 차례 보는 ‘회전문 관객’이 생겼어요. 또 김준수와 유태평양, 이소연 등 ‘국악계의 아이돌’, 창극 스타도 탄생했습니다. 창극이 가장 ‘핫’하고 공연예술의 중심에 섰어요.”

새로운 창극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창극 ‘변강쇠 점찍고 옹녀’(연출 고선웅)가 지난 2016년 4월 프랑스 파리 시립극장(테아트르 드 라 빌) 무대에 올려졌고, ‘트로이의 여인들’은 2018년 6월 오스트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 투

어에서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로 주목을 받았다. 2014년 부활시킨 국립극장 마당놀이 역시 6년째 인기를 끌며 ‘효자 삼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해학과 풍자 ‘마당놀이’ 인기 끌어= “어머니는 저한테 노래 부를 수 있는 DNA를 주셨고, 아버지는 연기를 할 수 있는 DNA를 주셨죠. 제가 되게 노력형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DNA를 제가 갖고 뒤아서 새로운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부친 김향(1921~1999)은 국본가이자 연출가였다. 1957년에 여성 국극단의 창극을 영화화한 ‘대춘향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진도 태생인 어머니 박옥진(1935~2004)은 ‘눈물의 여왕’으로 불린 1950~1960년대 여성국극 스타였다.

그가 처음 무대에 오를 때는 다섯 살 무렵, 어머니의 아역(兒役)을 주로 맡았다. 그래서 “무대와 극장은 우리의 집이자 놀이터였고, 배우들의 무대의상을 가득 담아둔 바구니는 요람이 되었다.”(‘천의 얼굴 김성녀 라이프스토리-벽속의 요정’) 그가 진명여고 3학년일 때, 어머니가 건

이해랑, 오태석, 백성희, 장민호 등 가라성 같은 연극 대가들과 작품을 함께 하며 연기에 새로운 눈을 떴다.

연극인생 동반자인 손진책-김성녀 부부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 정서가 담긴 한국적 연극’을 추구했다. 1981년 12월 처음으로 선보인 ‘마당놀이’는 그러한 고민의 결정체였다. 열린 공간에서 재담과 춤, 음악을 결합한 마당놀이는 연극계에 ‘새로운 장르’로 정착했다. 매년 공연 때마다 서울 10만명, 전국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김성녀는 윤문식, 김중엽과 함께 2011년까지 30년간 신명나게 마당놀이 판을 이끌었다. 김성녀 하면 마당놀이를 연상하고, ‘마당놀이의 여왕’ 또는 ‘마당놀이의 대모’로 불리는 것도 이때 워낙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소리장도(笑聲藏刀) ‘웃음 속에 칼이 숨겨져있다’는 뜻)라고 그러잖아요. (마당놀이)는 웃음 속에 비수를 꽂아서 해학과 풍자는 젊은이들이 듣고, 놀고 춤추는 것은 나이 드신 분이 보고, 소품의 재미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이렇게 모든 연령대 입맛을 다 맞춰서 시작할 거예요.”

그는 35살이던 1985년에 ‘마당놀이를 잘하기 위해’ 늦깎이로 단국대 국악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해 김연수 명창의 왕창 판소리 ‘춘향가’ 방송녹음 음반을 자료로 ‘김연수의 창작 판소리 연구-춘향가에 대하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앙대 국악대학에 음악극과가 신설되면서 교수로 부임해 많은 국악 인재들을 키웠다. 요즘 인기를 끄는 송가인과 김준수 등 창극과 뮤지컬, 트로트 분야에서 활약하는 젊은 세대가 그의 제자들이다.



예술 동반자 손진책-김성녀 부부. (김성녀 제공)

◇“무대에서 배우의 삶 마감했으면”=손진책-김성녀 부부는 서로에게 연기와 연출생활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일과 삶’의 동반자다. 외길을 걸어온 부부는 연극계 권위 있는 상인 ‘이해랑 연극상’을 2003년과 2010년에 각각 수상했다. 60대에 접어들며 ‘이해랑 연극상’을 받은 그는 자서전에서 “배우된 칭찬을 받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배우 김성녀의 앞으로 꿈은 무대 위에서 배우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무대에 서서 오늘까지 공연하고 내일 ‘이 배우가 어제 이 세상을 떠나 오늘 공연은 못합니다!’ 이라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게) 주셨던 걸 되돌고 주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클래스 수업으로 배우니까 졸업했거나 다니는 학생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배울고 싶어요. 늘그막을 육심 부리지 않고, 되돌려주는 봉사를 잘 조화롭게 하면서 눈감을 때까지 가고 싶어요.”

그는 1978년 국립 창작단에 입단했다. 이어 수년 후 국립극단으로 소속을 옮겨

강약화로 무대에서 쓰러졌다. 6남매(1남5녀)중 맏딸이었던 그가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녀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이때 손뜨개질을 익히게 됐는데 나중 손뜨개질 관련 책을 2권 냈다.

그는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인 향사 박귀희(1921~1993) 명창 문화에서 전수자로 가야금과 소리를 배웠다. 이어 1976년 극단 민에서 무대에 올린 연극 ‘한네의 승천’(연출 손진책)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연극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1978년 국립 창작단에 입단했다. 이어 수년 후 국립극단으로 소속을 옮겨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p>광주갤러리경매장</p> <p>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죽골길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p> <p>☎ 010-6778-9330</p>	<p>완도전북</p> <p>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p> <p>☎ 010-2831-9257</p>	<p>청강창호</p> <p>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p> <p>☎ 062)528-7711, 010-3612-9794</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p> <p>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p> <p>☎ 062)232-0038, 010-2290-0038</p>	<p>학산운명감정원</p> <p>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석 ☎ 010-8003-9000</p>	<p>태극익스프레스</p>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신용,분위</p> <p>☎ 062)222-2424, 011-664-2202</p>	<p>양지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p> <p>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p>토산철학원</p> <p>북구 두암동 예텐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 010-4106-5055</p>	<p>그집고기</p>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p> <p>대표 양병학 ☎ 010-6648-8842</p>	<p>으뜸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 062)263-5383, 010-6338-5383</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초대화랑</p>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무크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p> <p>☎ 062)370-9258</p>	<p>클로버부동산</p> <p>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판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p> <p>☎ 010-5707-6676</p>	<p>청학철학원</p> <p>북구우치로 39-1 (충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 010-9866-2332</p>	<p>고흥나루터</p>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침장),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 062)222-3092</p>
<p>국수나무용봉점</p> <p>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 062)526-5475, 010-8621-5959</p>	<p>금강버티컬</p>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류스크린, 천동류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류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 062)514-6118, 010-5627-6119</p>		